

도시기반시설로서의
urban park,
green openspace &
landscape
as urban infrastructures

공원 · 녹지 · 경관

도시공원의 등장과 19세기 도시공원관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통적인 설계영역의 해체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공원
도시와 자연의 새로운 공존기회, 제2의 자연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설계연구실
Landscape Design Laboratory, Chonnam Natl University, KOREA
tobcho@jnu.ac.kr



도시공원의 등장과 19세기의 도시공원관

도시라는 것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유기적 통합성이 없으면 빈민촌입니다. 도시는 우리의 제2의 신체입니다. 그 신체 기능이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배꼽입니다. 옴파로스입니다. 어떤 도시든지 가장 쓸모 없고 불필요한, 공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빈 공간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전체가 사는 것이지요. 우리 배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모두 일을 하는데, 제일 안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 배꼽인데, 그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 중심의 공간 옴파로스가 세계 어디 가든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park)입니다.

이어령

“ 전통적으로 근린공원이나 녹지 등의 공지는 도시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으로 여겨진다. 이런 생각을 뒤집어서 도시공원이 활력과 감상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보라. 사실 이런 생각이 현실과 더 일치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공원을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이용하지 않아서 공원을 버림받고 실패한 나라로 떨어뜨린다. ”

제인 제이콥스





경관과 도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19세기적 차이와 대립이라는 이분법으로 지속되어 왔다. 도시는 고밀도, 고층 건축을 가능케 한 신기술, 교통기반시설, 자본주의적 개발, 인구과잉, 오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 부작용과 얽혀 항상 부정적이고 번잡한 존재로 비쳐져 온 반면, 공원, 녹지, 가로, 산책로, 정원은 도시의 해악으로부터 피난처와 치유책을 동시에 제공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도시부제의 구원자로 탄생한 센트럴파크는 그와 같은 관점을 나타내는 전형으로서 근대 이후의 도시공원에 강력한 녹색그림자를 드리워왔다. 그러나 정작 센트럴파크가 그 주변의 부동산개발에 미친 영향을 미치고 도시형성 과정을 이끈 경제적 촉매가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공원.녹지.경관은 도시에 있어 어떤 존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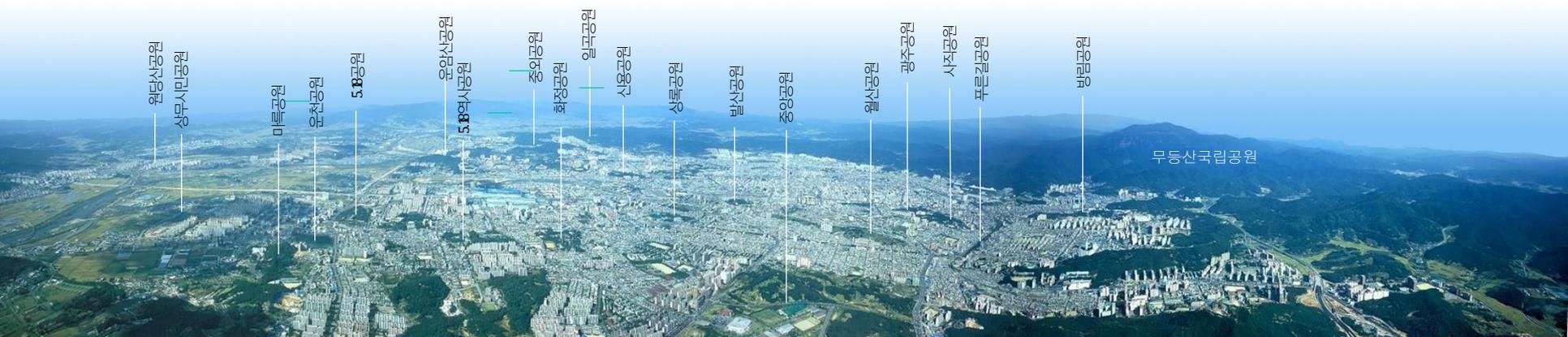
공원.녹지에 질게 드리워진 녹색그림자는 그나마 자연과 인공의 조화라는 기대감을 주며 존재감을 유지해올 수 있던 조경과 경관분야를 도시의 장식적 수단에 묶어 둔 역설이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도시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리적 형태나 기능 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부터 발생한다. 그만큼 현대 도시는 광범위하고 매우 복잡한 신진대사를 가진 변화하는 대규모 조직이며, 그 속의 삶 또한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토피아 지향에 매몰된 모더니즘 도시계획과 건축의 확고한 질서로 도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19세기에도 일찍이 예견된 바와 같이 도시는 더 이상 건축과 기반시설의 모음, 기능을 분담하는 부문의 합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혼성으로 출발한 조경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자의적, 타의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다.



VS



도시공원과 녹지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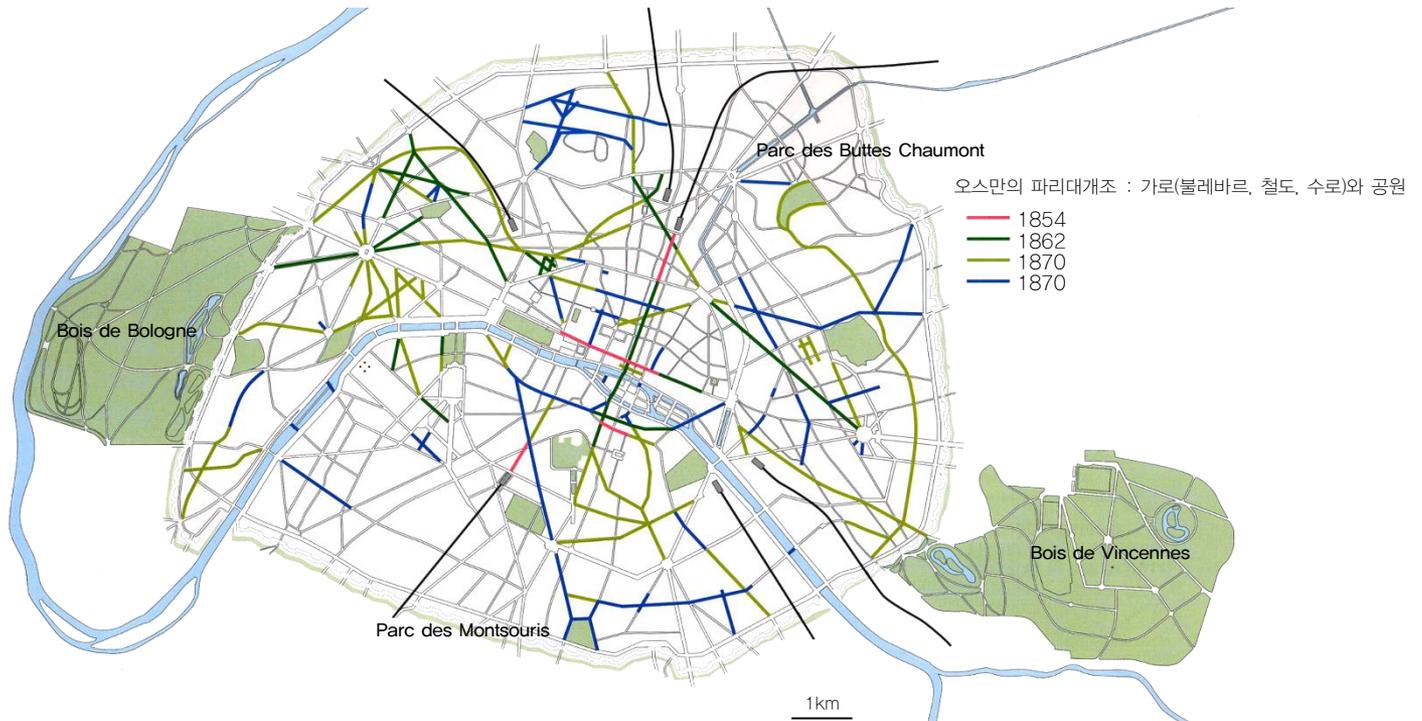
1847

1858

1867

19세기 근대도시에 등장한 도시공원의 개념은 도시의 화생자들,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도시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대해 복지와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었다. 기존의 도시구조에 기념비적인 녹색 골격을 새겨 넣은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에서 웅장한 볼레바르나 도시격자에 맞춘 초기 도시공원과 달리 후기 공원은 실제로 아직 건설되지 않은 도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후반의 대규모 파리공원, 볼로뉴 숲이나 방상느 숲, 옴스테드에 의한 미국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경관이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모델의 원형을 보여준다.

도시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원은 도시확장을 위한 틀이 되었다. 녹지는 앞으로 들어설 근린지역의 새로운 경계를 보여주며, 녹색 투자는 토지가치의 증대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과 시적 자연의 존재가 결합된 것이다.



산업혁명과 탈농, 도시로의 이주

양털을 가공한 모직물 수출로 높은 수입을 올리게 된 영국은 양모산업을 위해 각별한 보호정책을 썼다. 토지소유자들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농사를 그만두고 경쟁적으로 목양을 하면서 농지는 물론 황무지, 공동지에까지 울타리(인클러저)가 둘러쳐졌다. 폭력적인 농경지 봉쇄는 농민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소작농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대거 도시로 몰려들었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노동력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가 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바로 이 노동자층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능했다. 도시인구 증가에 의해 주택이 과밀화하고, 도시 내 공장이 난립하면서 대기가 오염되었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사망율은 차츰 낮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적 자금과 세금으로 상수도 시스템과 공공공원이 함께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공장법 통과(1819), 선거법 개정(1832) 등 대중의 권리확보는 그 근거가 되었다.



버켄헤드 파크, 영국 리버풀, 18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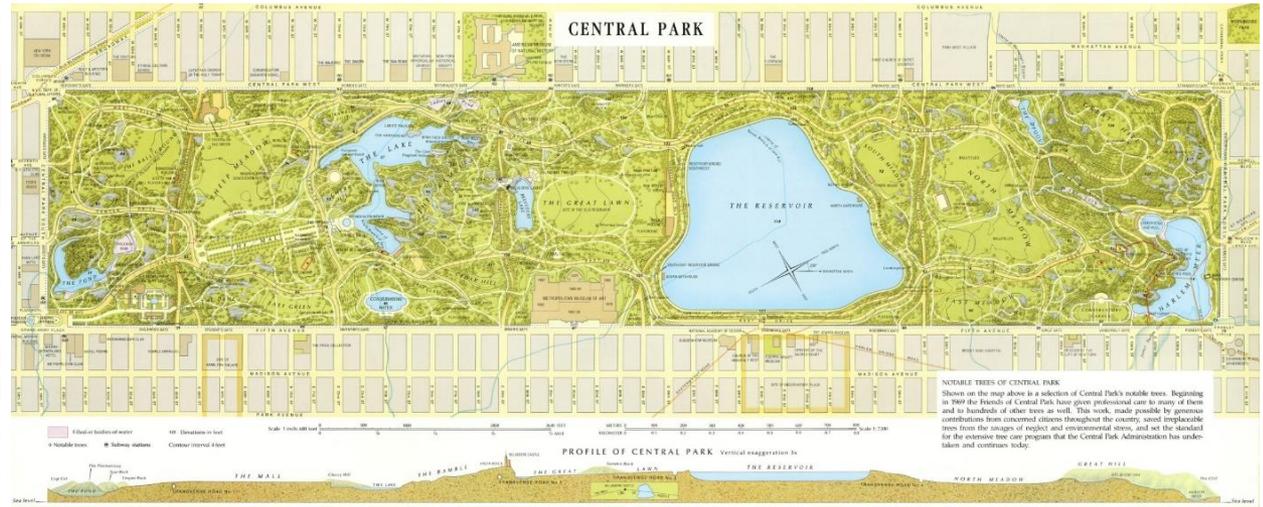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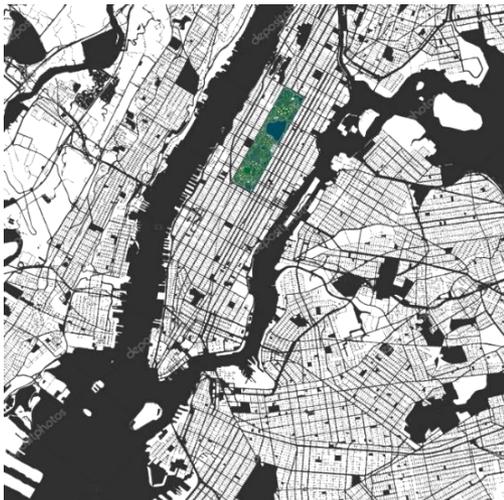
파리 뷔떼쇼몽공원
Parc des Buttes-Chaumont, 1867년



뉴욕 센트럴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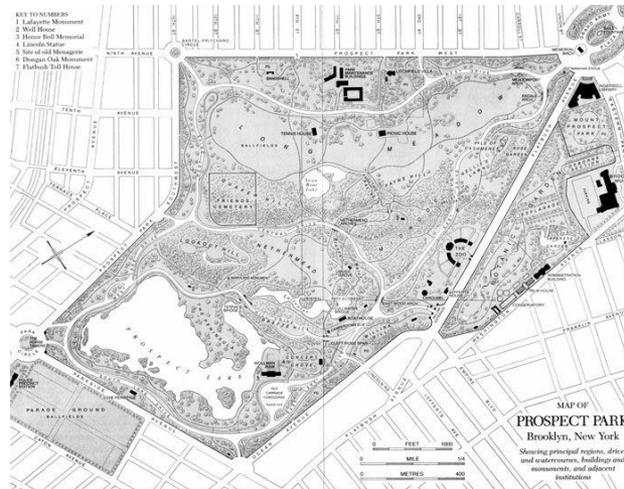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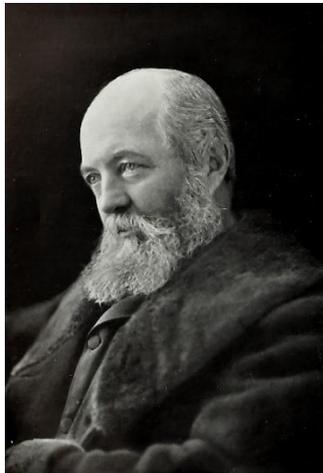


원예잡지와 NY이브닝포스트의 A.J. 다우닝(1815~1852)이 영국의 대중공원 성공사례를 역설하는 가운데 뉴욕시장선거에서 대형 도시공원의 구체적인 공약이 등장하였다. 1851년 뉴욕주 공원법이 통과되고 1853년 센트럴공원 토지수용 법안이 통과되었다. 1857년 센트럴파크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칼버트 보의 Greensward Plan을 바탕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1858년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최초 면적은 315ha였으며 1873년 341ha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상적 자연의 모방, 녹색풀밭 공원 GREENSWARD

센트럴 파크는 시민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며, 도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계공모로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대중공원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원내의 지역을 연결하고 도시를 단절하지 않도록 공원을 가로지르는 마차길을 공원 평균레벨보다 낮춰 입체적인 기법을 도입하였다. 옴스테드의 도시공원에 대한 비전은 미적인 면, 공공위생, 경제적인 면까지도 고려된 것이다. 옴스테드는 공공복지가 질서와 보안, 도시 경제생활과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녹색복지 뿐 아니라 잘 정비된 환경을 통해 평등과 사회정의 원칙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자연적 요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옴스테드는 도심의 숲이 배타적이거나 고밀도 도시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옴스테드와 그 이후 모든 조경가들의 목표는 도시의 자연화에 맞춰졌다. 조경가들이 추구한 이 방향은 결국 '정원도시' 개념으로 진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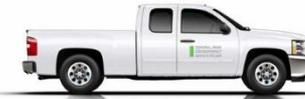


이후 옴스테드(1822~1903)는 브룩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1867년, Brooklyn), 보스턴의 프랭클린 파크(1885년) 계획설계에도 활동하면서, 현대 도시녹지계획의 근간이 되는 보스턴 공원녹지체계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CENTRAL PARK
CONSERVANCY
central to the park



Titling Gothic Skyline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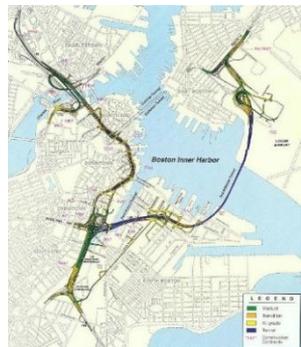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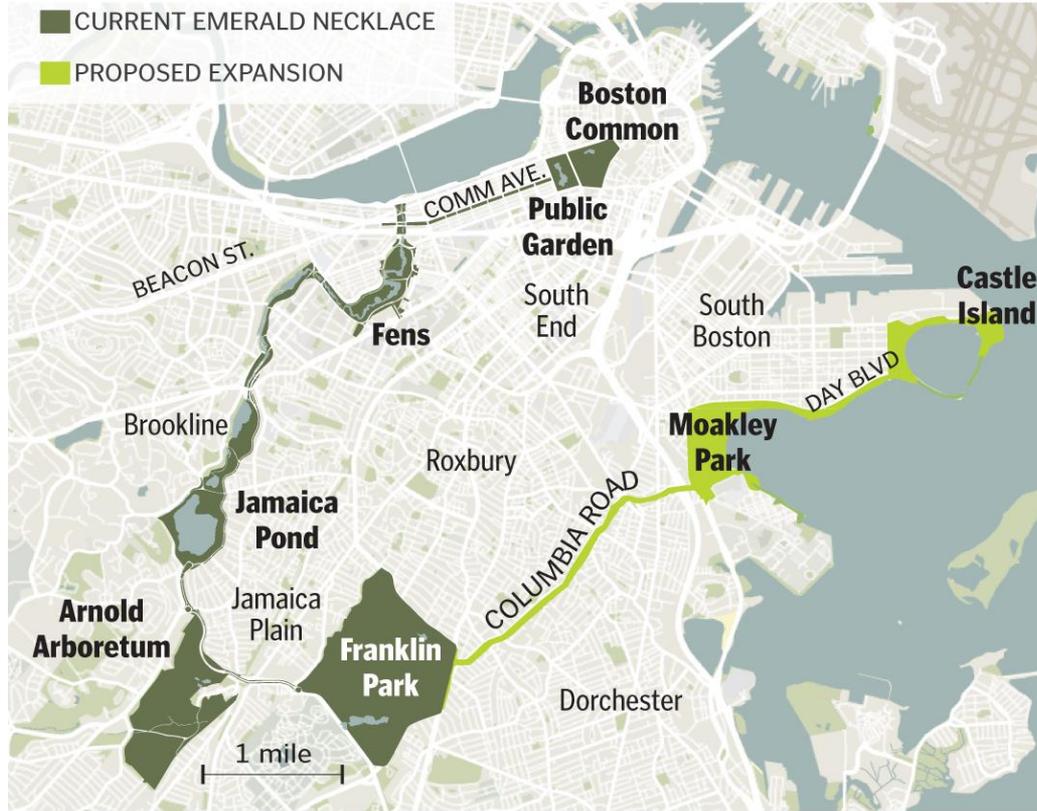


파트너십형 센트럴파크 운영조직 CPC에 의한 공원운영

- 1980년 결성된 민간부문 NPO
- 뉴욕시의 위탁운영관리의 책임을 지고 총 600만\$ 이상의 민간기금을 조성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개선사업과 사회교육 및 고용기회 증대에 기여
- 공원복원과 관리에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공공부문(뉴욕시 공원국)과 민간부문이 협력



보스턴의 공원녹지시스템 에메랄드 네클리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통적인 설계영역의 해체

도시발전과 변화의 과정적 모델로서의 공원 **리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국제설계공모**

과거에는 기능하는 도시의 일부(1867년 문을 연 파리의 가장 큰 도축장 부지, 505,750m²)였다가 변화하는 도시경계구조로 인해 버려진 부지의 도시적 변화를 위한 기본 틀로서 새로운 경관제시가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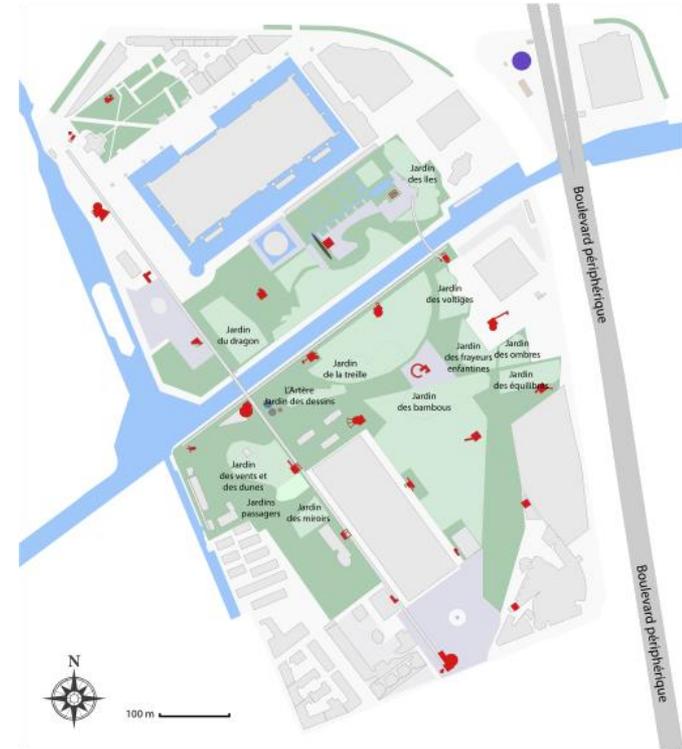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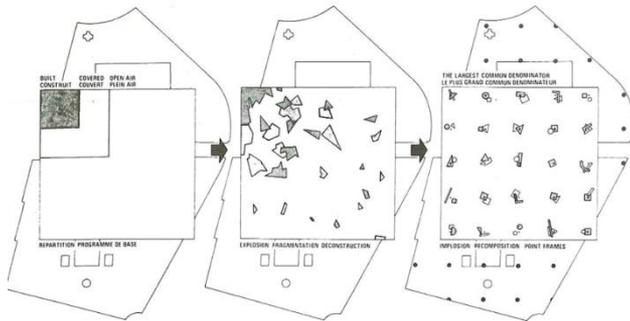
이 공모전에서 등장한 공원설계의 흐름들은 **경관은 그를 둘러싼 병든 도시환경에 건강함을 주는 역할을 넘어,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벤트, 그리고 대규모 탈산업화 부지의 비결정적 미래 사이에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 매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선자인 베르나르 추미를 비롯하여 램쿨하스, 피터아이젠만 등 도시건축가들이 현상설계에 참여하였고 당선작을 비롯해 주요안들은 데리다의 해체 개념이 명료하게 적용되었다. 공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용도 건축물이 문화적 창의력을 자극하는 주제정원과 함께 밀도있게 배치되는 구성은 과거의 목가적 풍경의 도시공원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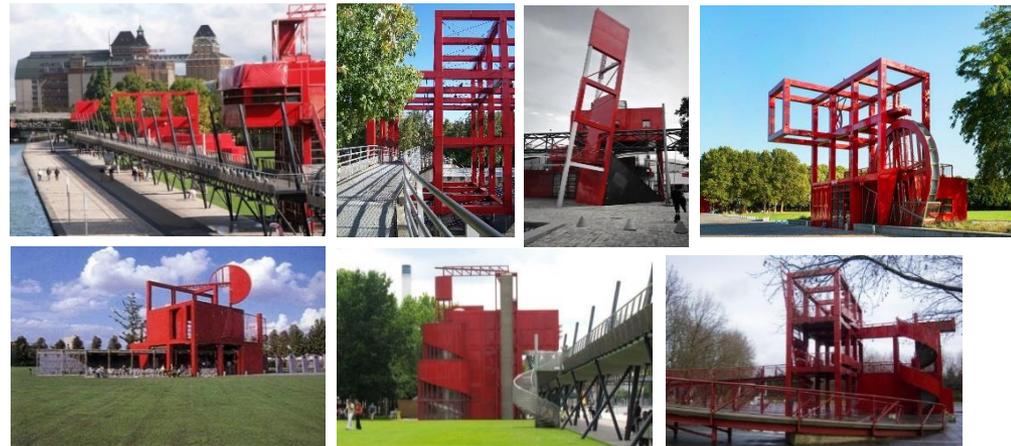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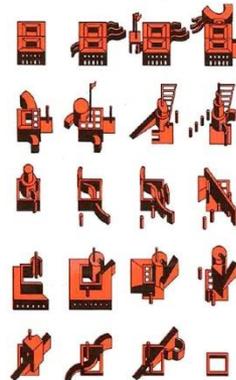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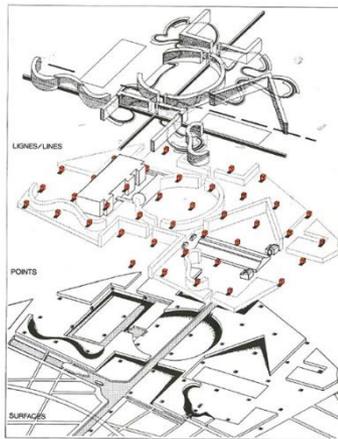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의 당선안

형태 구성이나 자연의 재현보다는 공간의 전략적 조직에 비중을 두고 무수히 변화가능한 도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호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전략적 층위(layer)를 통해 사회적 도구로서의 경관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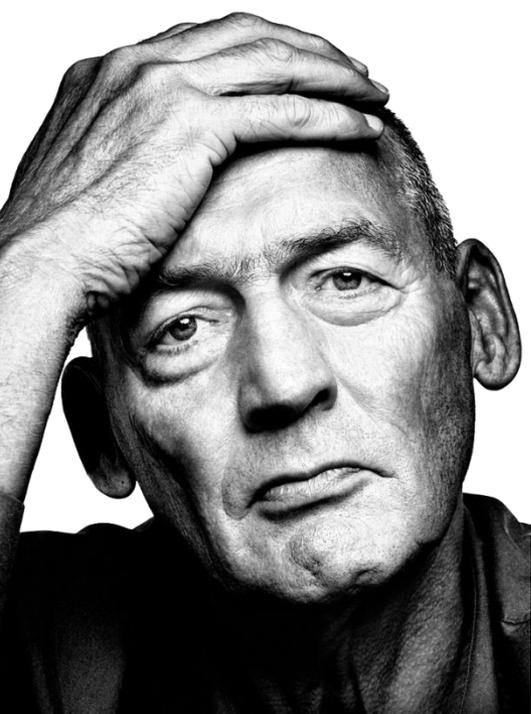
점(폴리), 선(동선, 산책로, 갤러리), 면(잔디, 수면, 주제정원)의 중첩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영화 주인공 같이 사건에 부딪히도록 공간을 장치화



“ 조깅 코스는 피아노 바를 뚫고 지나가며, 피아노 바는 수영장 위에 떠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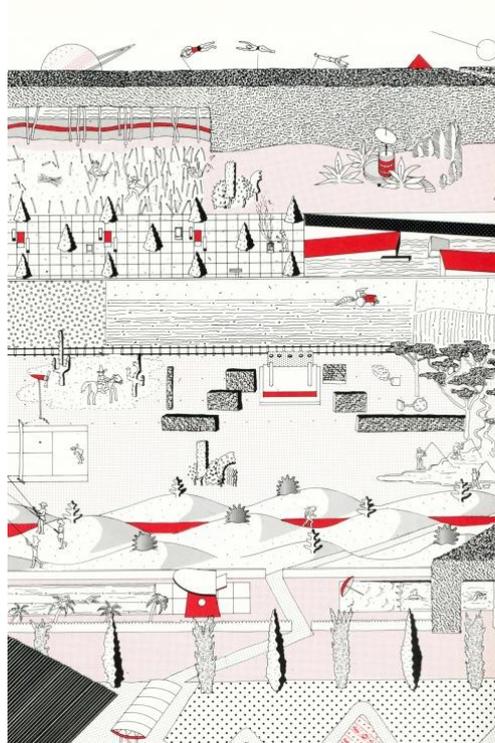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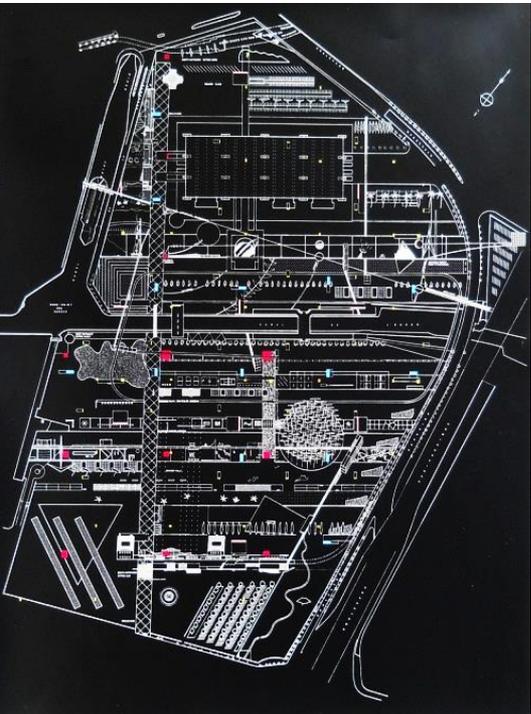




렘콜하스의 안

브루스 마우와 함께 제출한 전통적인 공원계획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분해하고 공원 기능은 정보발신원이 되는 “사회적 콘덴서”로 설정하며, 20세기의 또 하나의 언어인 미디어 게임과 같은 시각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연마저도 무대장치로 취급되며, 물질성을 제공하지 않는 허구의 도구가 된다. TV 화면의 주사선과 같은 스트라이프 패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려오던 도시환경도 결코 확고한 물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동하고 확산되며, 홀로그램과 같이 다채롭게 변용되는 자기장 일 뿐임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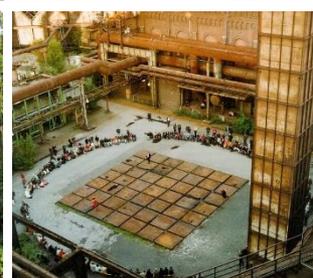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의 경관 독일 뒤스부르크노드 랜드스케이프 파크

“ 디자이너가 광역적이고 복잡한 대지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자연의 진행과정이 경관의 질을 결정한다. 공원의 미래는 수많은 레크레이션과 문화프로그램, 자생종과 외래종 식생군락의 천이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연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행태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

피터 라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공원

landscape

농촌, 토지, 전원풍경에
근간을 둔 조경

+

architecture

오브제 중심의 건축

+

urbanism

도시



경관을 더 이상 그림과 같은 전원적 풍경의 투시적 구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공간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관통하는 역동적 과정과 사건을 아우르는 신경조직 매트릭스로 경관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현대의 도시화 속에서 그러한 ‘경관’의 변화와 연속성, 개방성, 유동성 모두를 포용하는 설계사고이자 태도이다. 도시의 미래 개발과 변화 가능성을 포괄하며 열린 도시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경의 전통적 주제인 도시공원은 정태적이고 낭만적인 녹색의 휴식처라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활성화시키는 도시의 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내 건물 사이의 식재, 주차장, 공원, 녹지에 국한하지 않고 건물과 도로, 오픈스페이스,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포괄하는 도시의 진화와 생성의 장을 수용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990년대 이후에 북미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제기된 도시론이다. 생태학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이전의 조경분야의 전략을 한걸음 진전시킴으로써 차세대 도시디자인에서 조경의 역할을 자임한다. 1997년 찰스 발드하임 주도로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최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심포지움에서 “경관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이해할 것”을 선언하였고 2001년 하버드대학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동시대 유럽조경의 핵심적인 개념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규정하였다

Infrastructure

Process

Network

Horizontality

Ecology

Tech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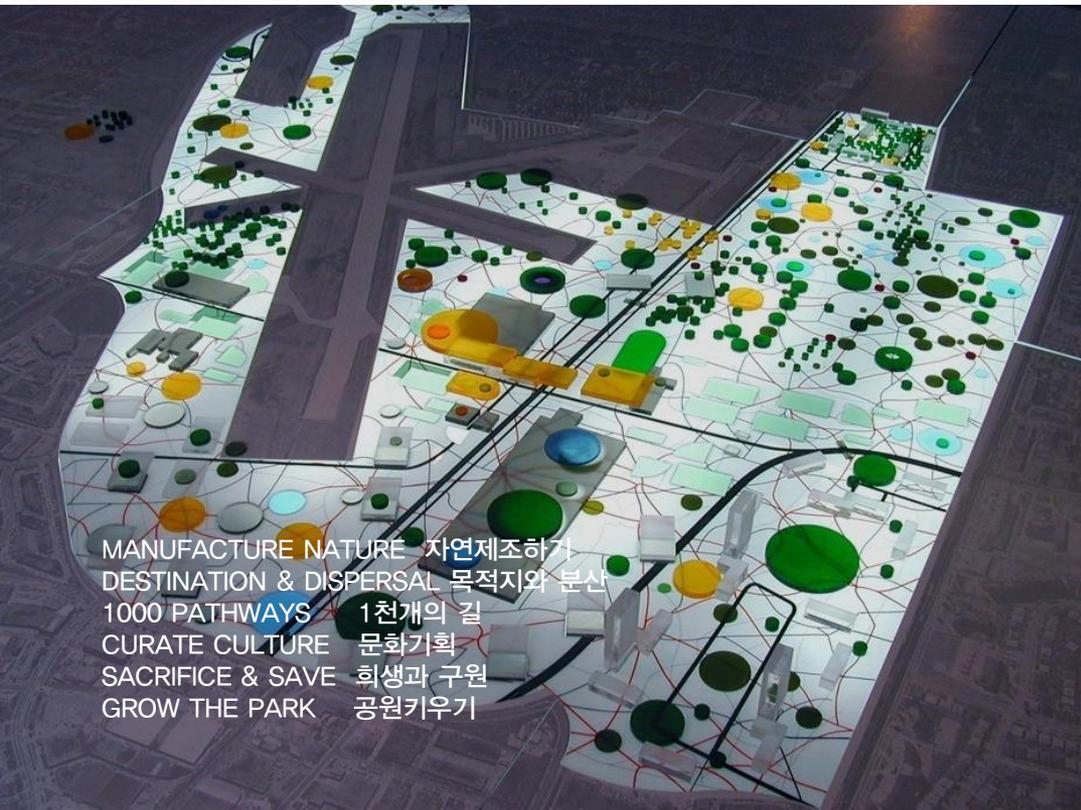


다운스뷰 파크 트리시티, 렘콜하스/OMA + 브루스 마우의 우승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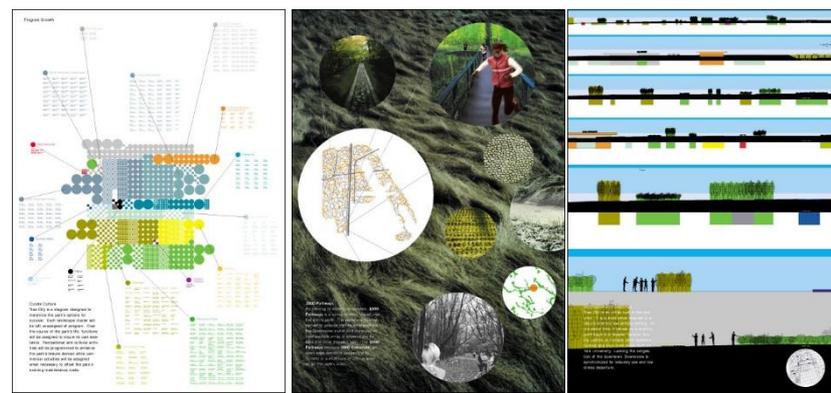
캐나다 토론토 노스요크에 위치한 대규모 이전부지로서 항공기제작사인 하빌랜드 캐나다 소유였다가 후에 공군기지로 활용되었다. 1999년 캐나다 정부가 전체 644에이커 중 320에이커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화할 것을 발표한 후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총 179개 팀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마지막 결선에 오른 5팀이 경쟁한 결과, 제임스 코너(필드 오퍼레이션)와 베르나르 추미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렘콜하스와 브루스 마우의 설계안 트리시티(Tree City)가 우승작으로 선정되었다.

트리시티는 종래의 공간디자인 방식이 아니라 경관적 전략을 통하여 알고리즘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디자인 레시피로서 진화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물을 조직하려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그러므로 다운스뷰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다.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폐기하고 도시가 일상에 개입하면서 도시와 공원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해법을 모색한다. 센트럴파크와 같은 이상적 자연의 모방도, 라빌레트와 같은 문화 콤플렉스도 아닌, 그야말로 공원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 도시의 형태인 것이다. 여가, 문화, 스포츠, 생태, 일자리와 경제활동, 주거, 이 모든 것이 융합되는 도시이며,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걷는 도시, 그리고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이다.



MANUFACTURE NATURE 자연제조하기
DESTINATION & DISPERSAL 목적지와 분산
1000 PATHWAYS 1천개의 길
CURATE CULTURE 문화기획
SACRIFICE & SAVE 희생과 구원
GROW THE PARK 공원키우기



다운스뷰 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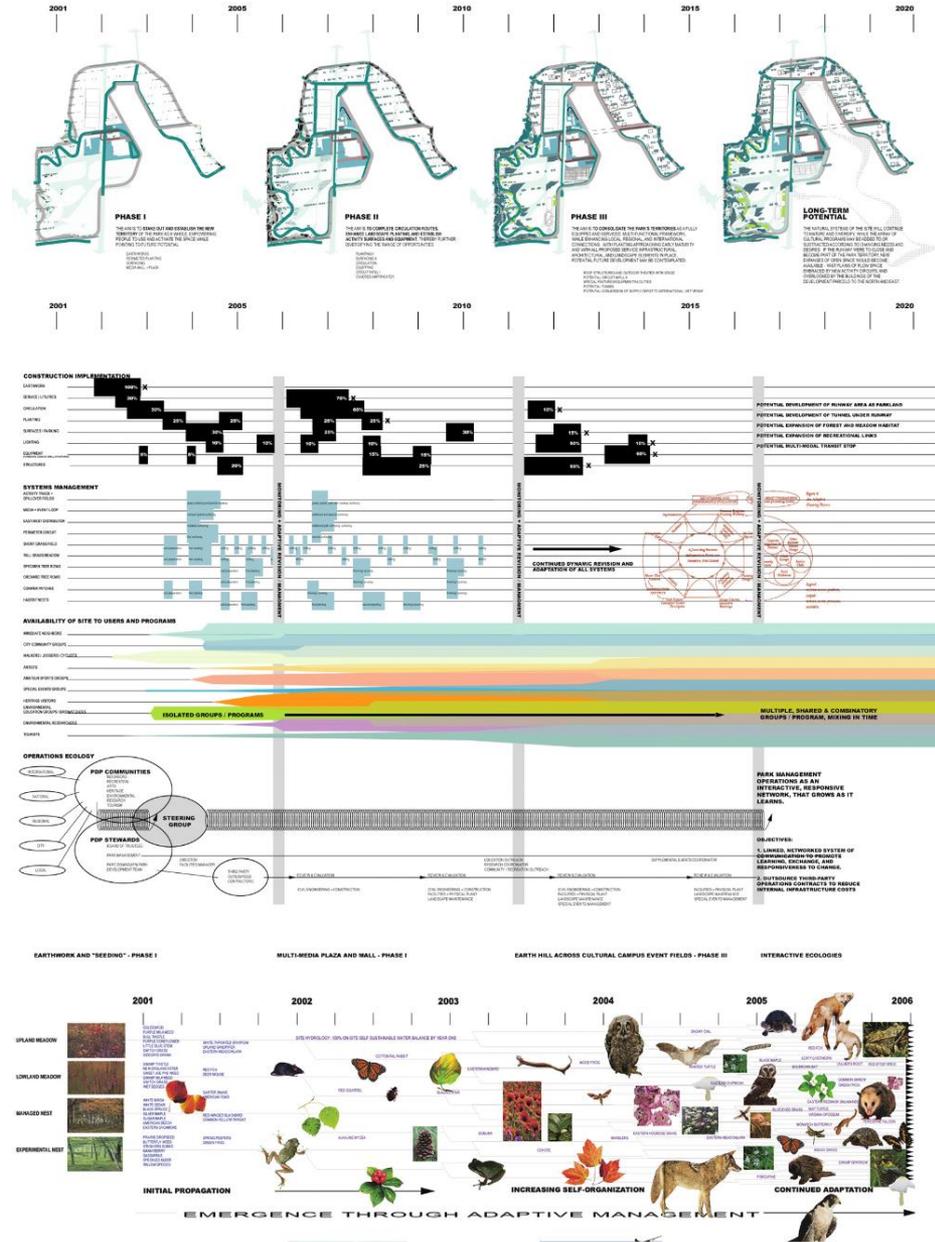
제임스코너/필드오퍼레이션의 안

적응적 관리를 통한 생성의 생태계(Emergent Ecologies)

제임스 코너는 초기에 경관생태학을 배우고 디자인교육을 받은 전형적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이다. 환경회복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은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자생적 변화를 개념으로 환경의 회복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설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생태학적 조경계획을 대표하는 맥하그처럼 <기반으로서의 생태>로부터 출발한다. 생태학적 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가 디자인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제약 때문에 지역스케일의 생태학적 계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생태학은 학문 또는 과학으로는 성립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역차원의 계획으로 실행 되기는 힘든 것이다.

맥하그의 사고는 지금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질 지역에서는 적용가능하지만 이미 도시화된 지역에서 생태학을 도입하는 경우 적용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인식하는 많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프로젝트들은 도시스케일의 생태에 주목하면서 실천적 부지스케일에 적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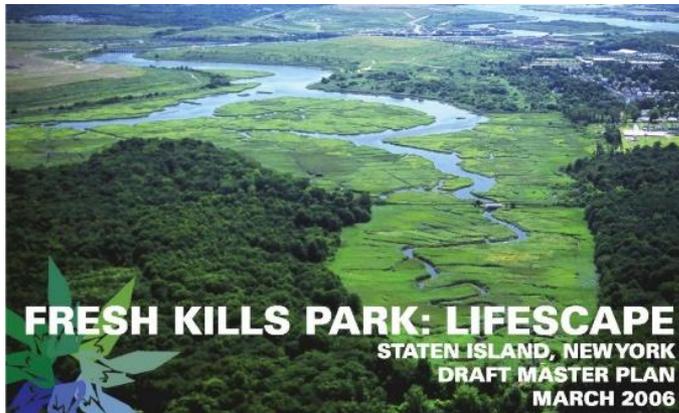
프레시킬즈 쓰레기매립지 공원계획

스테이트 아일랜드, New York, 2001~06

1948~1999년 프레시킬즈 매립장 운영(9.37km²)

2001년 공원을 위한 국제설계경기

2006년 프레시킬즈 공원마스터플랜 수립



개발목표 : 광대한 경관을 조직하는 3가지 기반구조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제공

입지조건, 지형, 수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제공 잠재력 보유
 다양한 공간, 놀이시설, 환경.문화교육의 장, 사회적 교류를 위한 세계수준의 공원 지향
 뉴욕광역권의 승마, 산악자전거, 대규모 공공설치예술 등 문화레저공간 제공

생물서식지

다양한 생태계, 생물종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서식과 식물번식에 필요한 자연환경제공
 자연환경개선 및 회복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방문객 및 관련전문가에게 자연관찰 및 생태계 보전 방법의 연구기회 제공

지역간 연결

공원내 모든 오픈스페이스 연결을 위해 육상 및 수상접근을 서로 잇는 순환네트워크 구축

THREE COORDINATED SYSTEMS ORGANIZE VAST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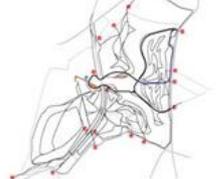
1. PROGRAM



2. HABITAT



3. CIRCULATION



site plan

after land reclamation

The growth and introduction of these species, surface water and channels of storm water are an integral feature for the architecture of the site.



생명의 경관 LIFE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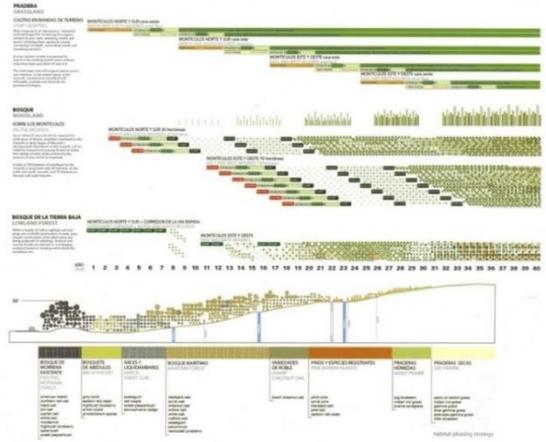
제임스 코너(필드 오퍼레이션스)

“ 대지는 살아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이다 ”

공원의 자연은 단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곳의 일부가 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경관이다. 생명의 경관은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적응과 번식의 과정을 선도적으로 보여준다.

마스터플랜은 뉴욕의 캠핑, 야생동물 관찰, 산악자전거, 스포츠, 걷기, 사이클, 보트, 퍼포먼스, 학습, 이벤트, 지역활성화, 태양 및 풍력발전전에 의한 농업, 탐험과 예술 등 광범위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투자를 끌어내게 된다.

제한된 계획의 특징과 소재 및 부지 여건에 대한 대응은 자연과 문화, 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공공공간을 창출에 주목하며 프레시킬즈의 과거를 산업 기반시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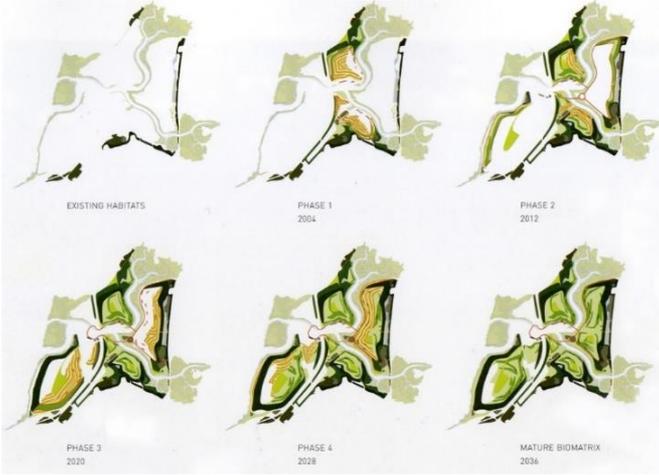
LES ESPÈCES PLANTÉES DE INTRODUCIR	LES ESPÈCES PLANTÉES DE INTRODUCIR
<p>TRIGO <i>Triticum aestivum</i> Highly productive annual grasses in stable agriculture for some grasses and can be used to plant alfalfa.</p> <p>TRIGO <i>Triticum aestivum</i> Highly productive annual grasses in stable agriculture for some grasses and can be used to plant alfalfa.</p>	<p>TRIGO <i>Triticum aestivum</i> Highly productive annual grasses in stable agriculture for some grasses and can be used to plant alfalfa.</p> <p>TRIGO <i>Triticum aestivum</i> Highly productive annual grasses in stable agriculture for some grasses and can be used to plant alfalfa.</p>
<p>PASTO Y OTRAS ESPECIES Cultivos de alto rendimiento que crecen en condiciones estables para algunos pastos y otras especies.</p> <p>GRASS <i>Medicago sativa</i>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age crops, being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roduction of the animal feed.</p>	<p>PASTO Y OTRAS ESPECIES Cultivos de alto rendimiento que crecen en condiciones estables para algunos pastos y otras especies.</p> <p>GRASS <i>Medicago sativa</i>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age crops, being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roduction of the animal feed.</p>
<p>CANOLA <i>Brassica napus</i> A dominant crop of field mustard.</p>	<p>CANOLA <i>Brassica napus</i> A dominant crop of field mustard.</p>
<p>TRIGO BARBADO <i>Paspalum conjugatum</i>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age crops. An aggressive and fast growing annual with a relatively broad leaf structure and high productivity.</p>	<p>TRIGO BARBADO <i>Paspalum conjugatum</i>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age crops. An aggressive and fast growing annual with a relatively broad leaf structure and high productivity.</p>
<p>COLZA <i>Brassica campestris</i> Fast growing, maturing seed that has become nearly non-toxic to humans in oil and meal products. Some might contain BPA seed oils, needs investigation!</p>	<p>COLZA <i>Brassica campestris</i> Fast growing, maturing seed that has become nearly non-toxic to humans in oil and meal products. Some might contain BPA seed oils, needs investigation!</p>

phasing and development sequence



▲ 초지 생태계 조성전략과 도입종

생물서식지의 단계적 예측 ▶



30년간 . 3개의 단계 . 5개의 공원

1. 합수부공원(CONFLUENCE)
2. 북측공원(NORTH PARK, 94ha)
3. 남측공원(SOUTH PARK, 17ha)
4. 동측공원(EAST PARK, 195ha)
5. 서측공원(WEST PARK, 220ha)



시간과 변화

”바람직한 전략이란 유연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결정적일 때 구조적 대응이 가능한, 잘 조직된 공간, 프로그램, 논리 등의 면에서 계획이어야 한다.”

1단계(착수후 10년) 공원기반구축

1. 남측공원과 북측공원 일부지역 및 합수부공원 일만개방
2. 공원서측고속도로와 연계가능한 순환동선 완공
3. 1단계 레크레이션 시설 완공 및 운영
4. 비영리 목적의 1단계 프로그램 및 시설설치, 상업시설 유치
5. 새로운 공원지역 정체성 확립
6. 동측 및 서측 매립구릉지 폐쇄 및 덮개공법 시공

2단계(착수후 20년) 공원시설, 프로그램 도입과 생태환경 회복

1. 북측, 남측, 합수부공원에 추가 레크레이션시설 도입과 생태환경 개선
2. 산책로, 보행로 및 수상교통 접근로 확장
3. 비영리시설 및 상업시설 조성, 공원내 공공공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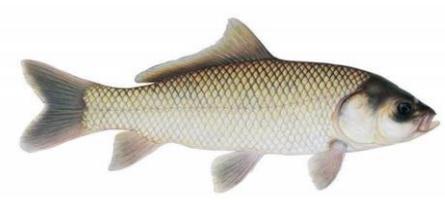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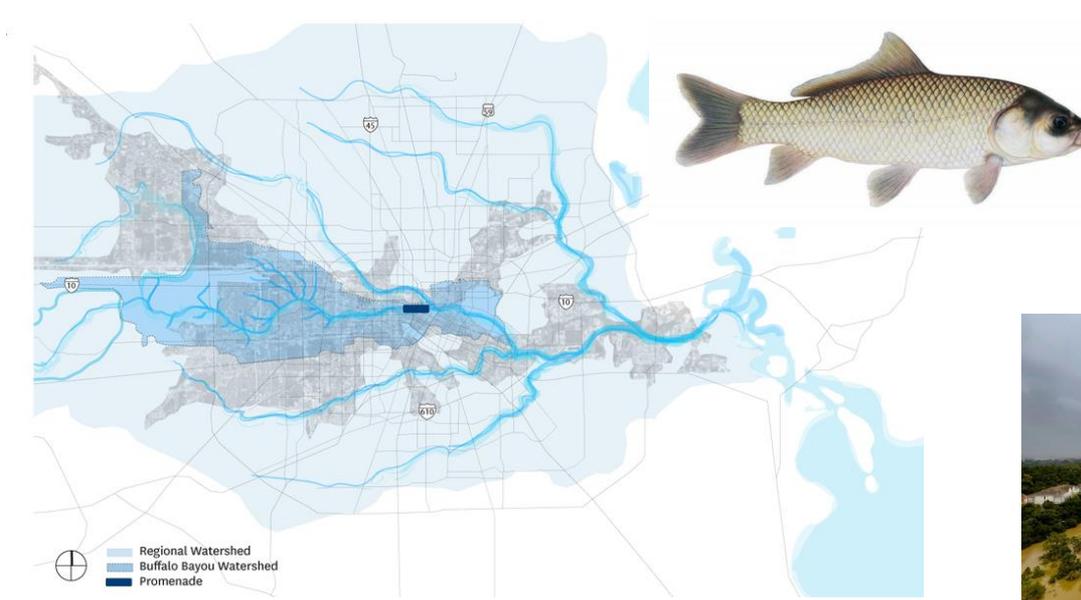
3단계(착수후 30년) 공공공간 확장 및 매립시설의 완전한 공원화

1. 서측공원의 자연환경과 공공녹지의 획기적 확장
2. 공원 내 Arthur Kill 경계부 개발
3. 주요 프로그램 대상지 개발 및 활성화 도모
4. 새로운 생물서식처 확장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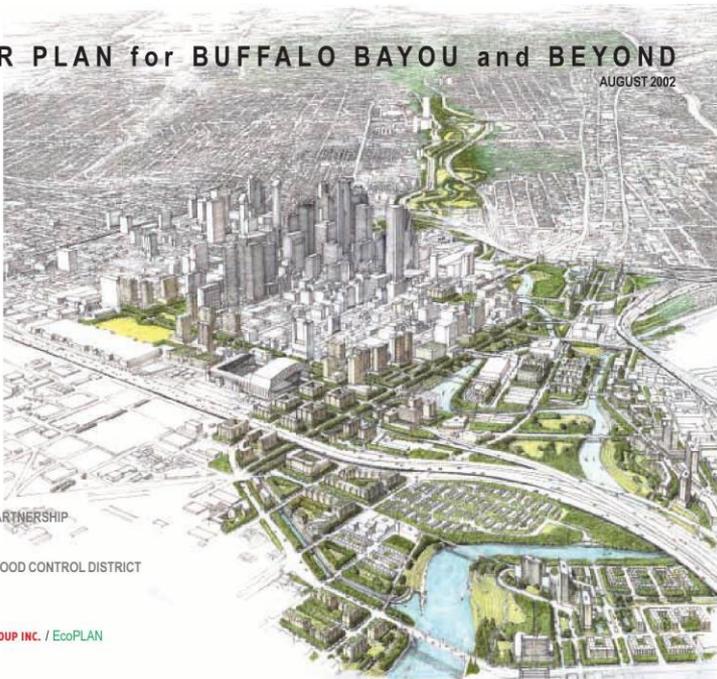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경관

버팔로 바이유(Buffalo Bayou) 수변공원 텍사스 휴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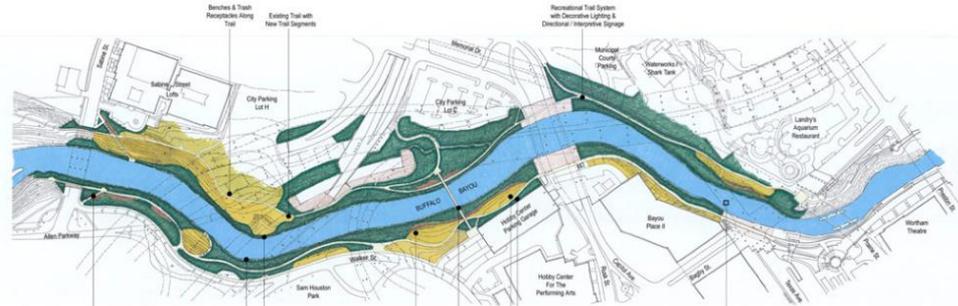
MASTER PLAN for BUFFALO BAYOU and BEYOND

AUGUS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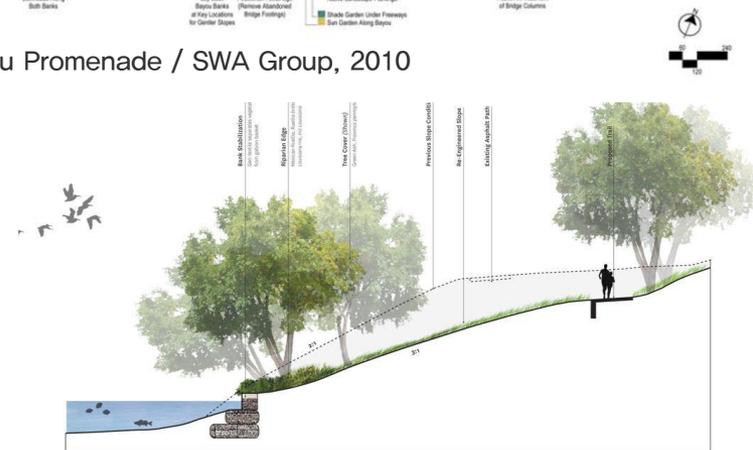


PREPARED FOR:
 BUFFALO BAYOU PARTNERSHIP
 CITY OF HOUSTON
 HARRIS COUNTY
 HARRIS COUNTY FLOOD CONTROL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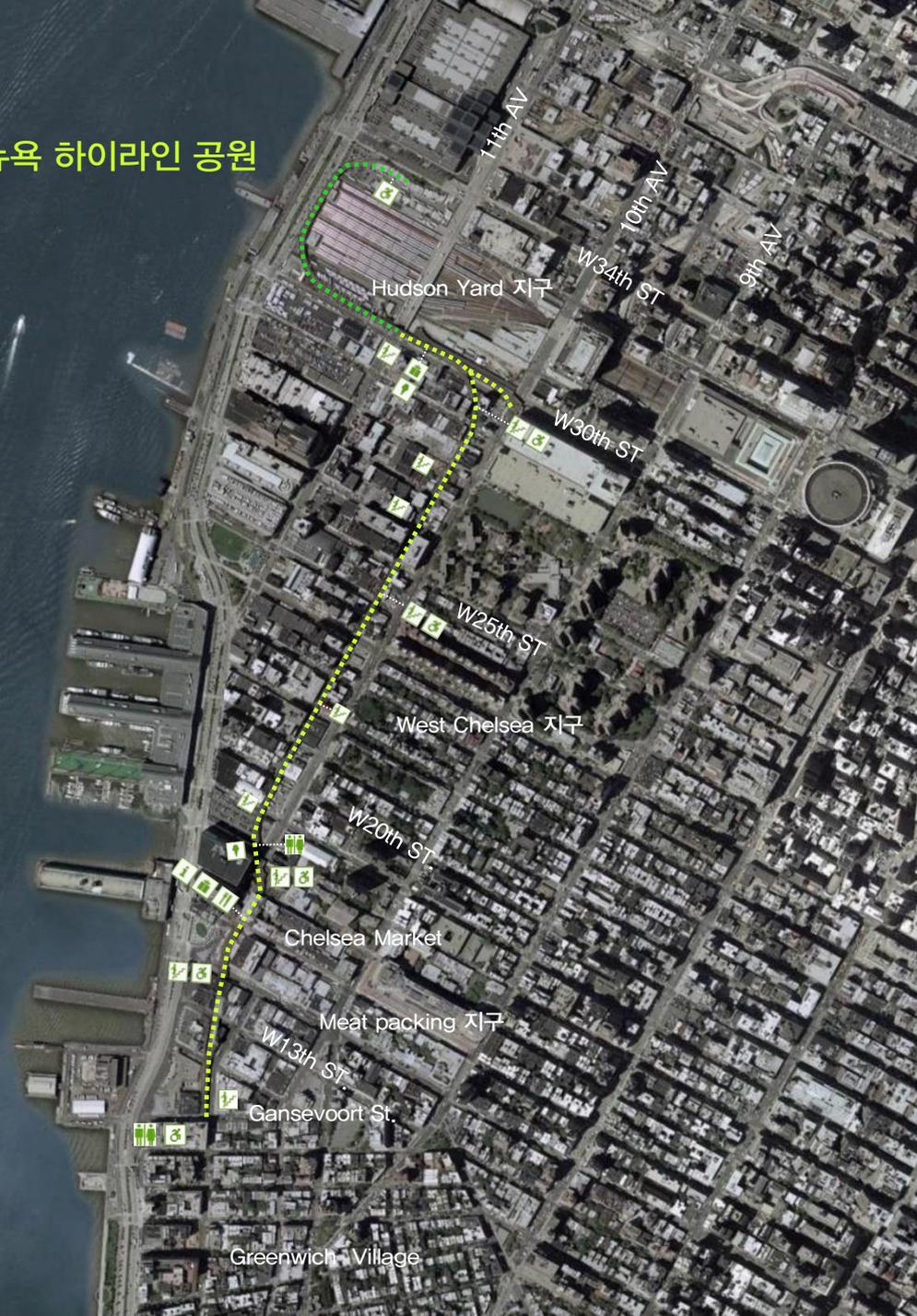
BY
THOMPSON DESIGN GROUP INC. / Eco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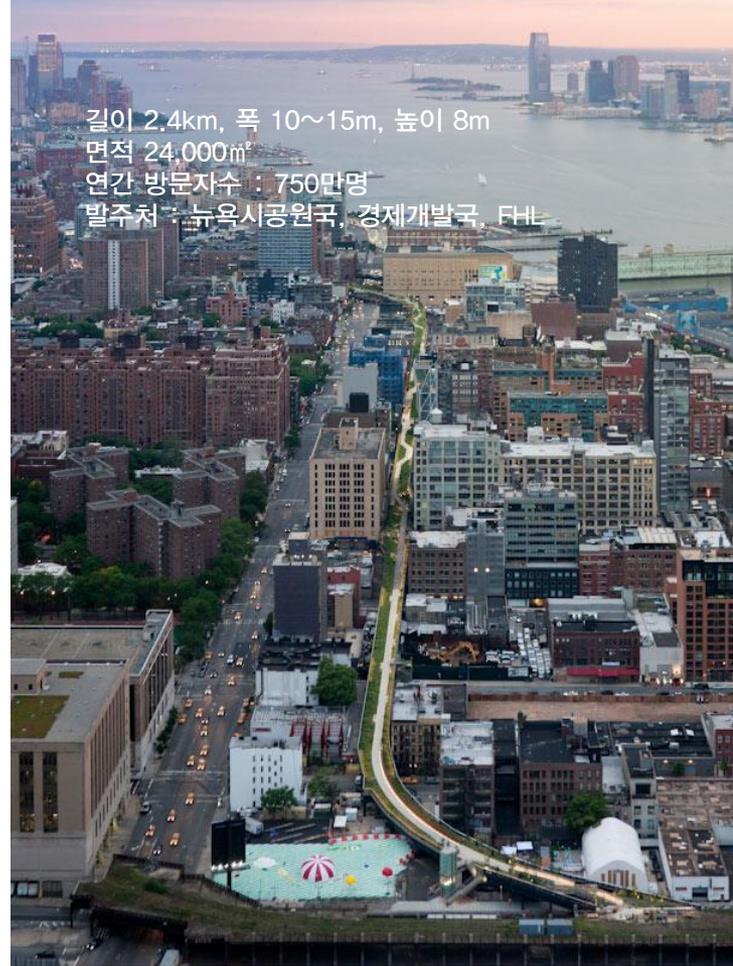
Buffalo Bayou Promenade / SWA Group, 2010



뉴욕 하이라인 공원



길이 2.4km, 폭 10~15m, 높이 8m
 면적 24,000㎡
 연간 방문자수 : 750만명
 발주처 : 뉴욕시공원국, 경제개발국, FHL



하이라인 건설이전의 상황

1847년 뉴욕시가 맨하탄웨스트사이드 아래 측에 철도를 설치하며 수변일대를 산업지대로 조성한다. 허드슨강철도로 시작된 철도는 후에 뉴욕중앙철도로 바뀌며 10번가와 11번가를 따라 형성된 수변지대 공장과 창고들의 수송수단 역할을 한다.



1851-1929

화물철도와 도로교통간에 많은 사고가 이어지면 10번 애비뉴는 죽음의 도로로 불리게 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웨스트사이드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기차를 선도하기도 하였다.



1928

장애물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면서 뉴욕시와 뉴욕중앙철도가 웨스트사이드 개선사업에 합의하고 하이라인을 포함한 사업에 착수한다. 10만달러를 투입 전체 20.8km에 걸쳐 105개의 철도건널목을 없애고 51,200m²의 리버사이드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2억 달러에 해당된다.



1934

하이라인 철도가 세인트 존스파크 터미널까지 개통된다. 길에 건설되거나 지하철도선 위가 아니라 블록을 가로질러 공장과 창고를 직접 연결하며 건물 안으로 기차가 들어가기도 하였다. 낙농, 축산제품, 생선, 가공품들이 도로 교통과 상충없이 운반되게 된 것이다.



1950, 60년대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트럭운송이 증가하면서 하이라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철도교통이 줄어든다. 웨스트사이드의 산업용도가 쇠퇴하면서 1960년대에는 하이라인 남단부는 폐쇄되었다.



1979

하이라인과 주변도시환경과의 관계 및 산업적 특징에 오랫동안 매료되어왔던 건축가 Steven Holl은 레일 기반 위에 공공산책로와 함께 홀리스를 위한 주택에서부터 고급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을 지어 구조물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1980

최후의 철도는 냉동질면조 화물 3량을 끈 철도였다. 철도교통이 끝나자 레일과 쇠석 틈에 잡초가 자라며 새로운 풍경이 형성되었다. 바람과 곤충, 새들에 의해 실려온 풀들과 꽃들은 구조물의 상부를 차지해갔다. 점차 새로운 토양층이 만들어지면서 철도수송 공간이 야생의 경관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중반

이 지역 토지소유자모임이 구조물 완전철거를 요구한다. 하이라인 하부의 토지를 소유한 이 모임은 하이라인의 권리를 반영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한 점을 주장한 것이다. 철시 주민이자 기차애호가, 하이라인 철도부흥 활동가인 Peter Obletz는 하이라인철거를 반대하며 새로운 철도교통을 주장하였다.



1999

하이라인 철거에 대응한 철시주민모임에서 Robert Hammond와 Joshua David가 만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하이라인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 달내에 비영리법인 FHL을 창립하고 공공녹지로 활용재생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하이라인의 친구들

2000-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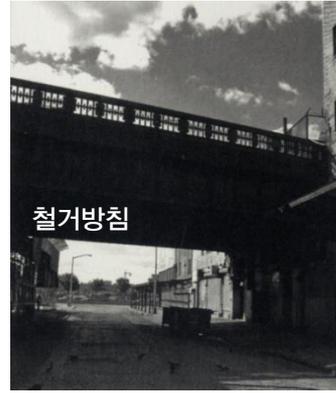
Joel Sternfeld의 4계절에 걸쳐 하이라인 상부의 풍경을 찍어 *Walking the High Line*을 출간한다. 스티븐 팸 드의 사진은 맨하탄의 상징적 도시경관을 가르는 철도의 기록이기도 하였으며 하이라인 보존에 도움이 되었다.



Joel Sternfeld

2001

뉴욕시장 줄리아니 시 정부(1994-2001)가 하이라인을 철거하기 위한 입법초안에 착수하자, FHL은 즉각 일방적 철거는 불법임을 제기하였다.



철거방침

2001

Gifford Miller와 Christine Quinn이 주도한 뉴욕시의 의회는 하이라인 보존을 지지하는 해결안을 통과시켰다. 볼룸버그 시장이 당선되면서 하이라인을 공원화하여 뉴욕시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발표한다.



새로운 도시정책

2002. 10

FHL이 하이라인 프로젝트가 공원주변의 부동산가치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가 건설비용을 상회한다는 내용의 경제성 입증 평가를 내놓았다.



평가

2002. 12

볼룸버그 시장이 하이라인을 잠정적으로 공공 오픈스페이스로 기여하도록 하면서 미래 교통으로서 보존되도록 하는 연방철도보전활용계획(Rail Banking Program)에 등록하였다.



철도보전프로그램

2003

FHL이 하이라인 재활용 아이디어공모를 시작으로 디자인과정에 착수하였다. 아이디어는 사실적이거나 현실화될 필요없이 단지 하이라인의 미래가능성을 겨루는 것이었다. 36개국으로부터 720개 팀이 등록하여 그랜드 센트럴터미널에서 수백개 작품을 전시하였다.



아이디어 공모전

2003

FHL이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연속 개최하여 주변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 포럼의 중심주제는 하이라인에 들어설 공공공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어떻게 작동하여야 할지였다. 주민참여는 계획, 설계의 여러 단계별 포럼을 개최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자리잡았다.



주민의견 수용

2004

FHL과 뉴욕시로 구성된 지명현상공모방식으로 설계과정이 진행되어, 7개월의 설계경기를 거쳐 원예, 구조공학, 조명, 안전, 관리, 공공미술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Field Operations 조경설계사무소와 Diller Scofidio+Renfro의 설계안으로 결정되었다.



디자인공모

2005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와Diller Scofidio+Renfro는 5개월간 MoMA에서 구상안 이미지를 전시하였다.



기본설계

2005. 6

지상교통국은 하이라인에 대한 산책로 장점 이용을 승인하고 뉴욕시에 철도보전활용협정을 승인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몇 개월후, CSX 트랜스포테이션은 30번가 남측의 구조물을 기증하고 산책로이용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30번가 남측의 레일보전에 유효하게 되었다.



산책로 용도 승인

2006. 4

Gansevoort에서부터 20번가까지의 하이라인 남단부터 공사가 개시되었다. 1단계는 철로와 쇄석,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원래 철도는 지도화하고 번호를 붙여 보관하며 그중 일부는 공원디자인에서 다시 설치하였다.



공사착공

2007

공사 2단계는 1구간부터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는 철재부 샌드블라스팅과 재도색, 콘크리트 보수와 배수관 정비, 철로하부의 비둘기 퇴치시설 설치가 포함되었다. 이어서 20번가부터 30번가 사이의 2구간 공사가 시작되었다.



기반 정비

2008. 1

1구간 기반공사 마무리되면서 조경공사가 시작되었다. 콘크리트보행로와 식재 기반구조물, 의자, 조명, 레일 재설치 등이 진행되었다.



조경공사

2008

1,2구간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구간부터 식재가 진행되었다.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감독하에 식물디자이너 Piet Oudolf가 결합하였다. 새로운 식물은 조엘 스타펠드의 사진집에서 보이는 원식생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식재

2009

1구간(Gansevoort가-20번가)를 오픈하고 2구간은 2010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9년에 오픈하였다.



오픈

“ 그 곳은 질문의 땅이다.
 구속받지 않는 공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요함이 그곳에 있었다 ”

Peter Obletz

피터 오블레츠는 1984년 콘레일사로부터 10달러에 하이라인 일부 구간을 구입하여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려 시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는 웨스트첼시 지역 주민이면서 커뮤니티보드4의 의장을 역임한 마을활동가였다. 하이라인 인근에 살며 철도식당차 2량을 사들여 복원할 정도로 기차 매니아이기도 하였다. 1982년 그는 몇 개의 계단을 통해 하이라인 위를 처음으로 올라가보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하이라인의 잠재력을 직감할 수 있었다. 1996년 암으로 50세의 이른 나이에 죽게 되지만 그의 노력은 후에 하이라인 보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가 살던 27번가의 아파트가 올라다 보이는 하이라인 공원에는 그를 기념하는 벤치가 설치되었다.



A man with a shaved head, wearing a dark zip-up jacket over a dark t-shirt, stands on a rooftop. He is looking off to the right. The background shows a city skyline with various buildings, including a prominent skyscraper with a spire. The sky is a mix of blue and orange, suggesting sunset or sunrise. The rooftop has some dry grass and a black railing.

한동안 버려져 황폐화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이라인을 흉측하고 어두운 곳이라 생각해 어떻게든 철거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물 자체를 깨끗이 단장하고 밝은 공간으로 바꾸어 식재와 보행로 등의 시설을 도입하기만 한다면
“ 오히려 큰 매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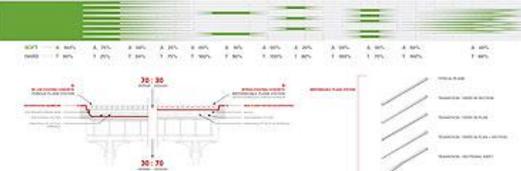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철학이란, 상황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고 장소적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욱 증폭해 드러내는 것이었다 ”

James Corner / Field Operations

WHAT WILL GROW HERE ?

Inspired by the melancholic, unruly beauty of the High Line where nature has reclaimed a once vital piece of urban infrastructure, the team retools this industrial conveyance into a postindustrial instrument of leisure, life and growth. By changing the rules of engagement between plant life and pedestrians, our strategy of **AGRI-TECTURE** combines organic and building materials into gradients of changing proportions that accommodate the wild, the cultivated, the intimate, and the hyper-social. In stark contrast to the speed of Hudson River Park, this parallel linear experience is marked by slowness, distraction and an other-worldliness that preserves the strange character of the High Line. Providing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to the changing needs, opportunities, and desires of the dynamic context, our proposal is designed to remain perpetually unfinished, sustaining emergent growth and change over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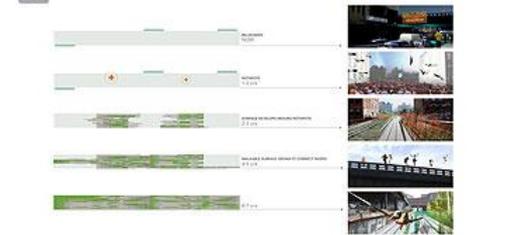
1 AGRI-TECTURE: A FLEXIBLE, RESponsive SYSTEM OF MATERIAL ORGANIZATION WHERE DIVERSE ECOLOGIES MAY G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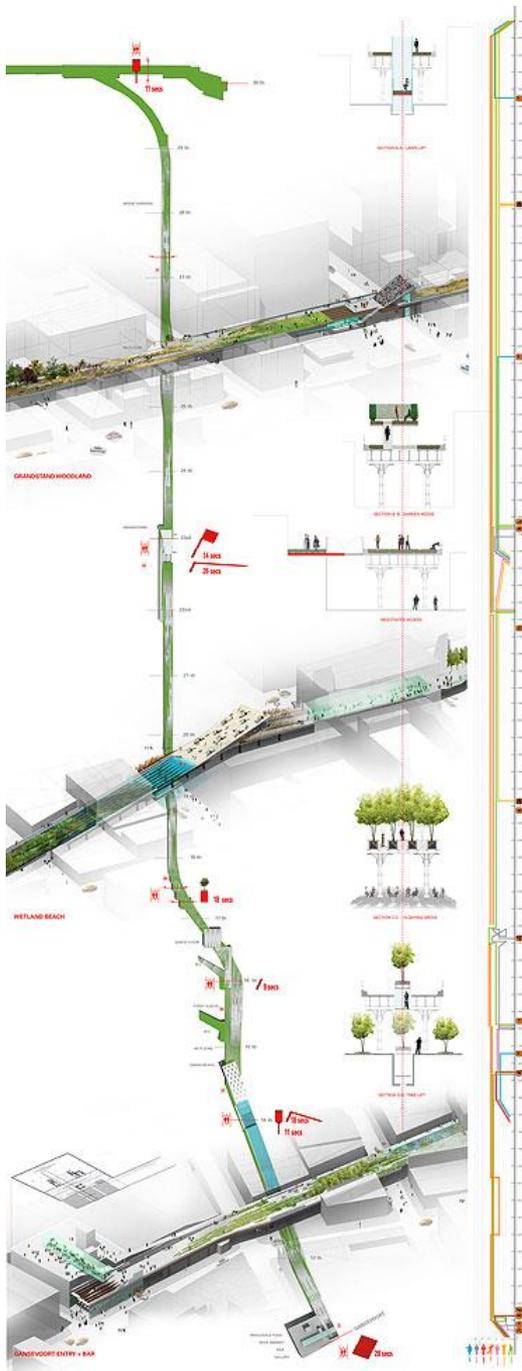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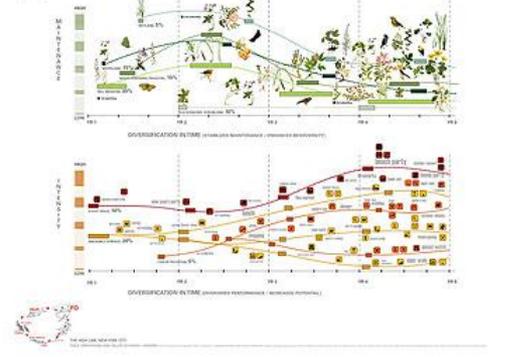
2 A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HARD SURFACES AND STRUCTURES AS MEANS OF PRODUCING DIVERSE SOCIAL AND NATURAL HABITATS.



3 A SYSTEM THAT IS CAPABLE OF PHASED IMPLEMENTATION OVER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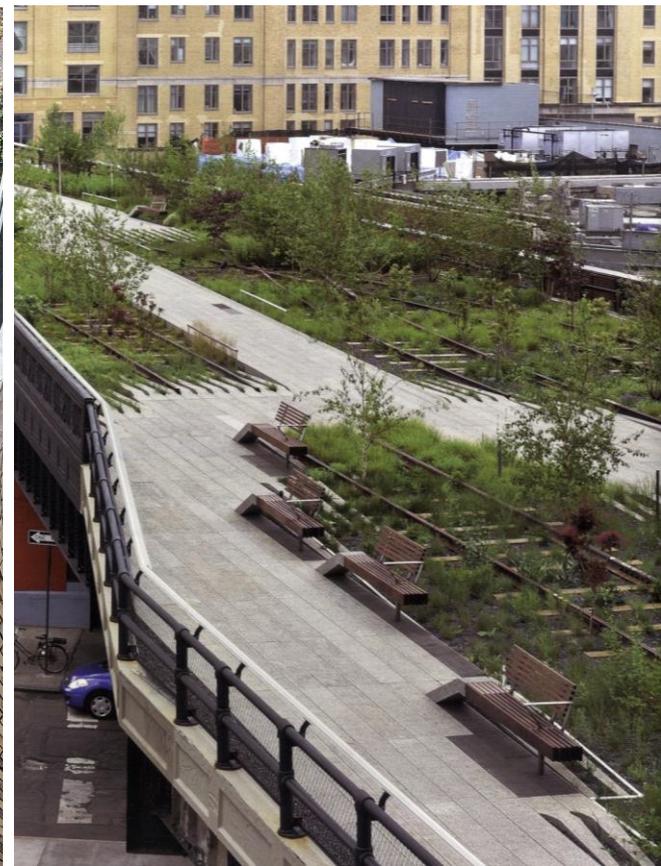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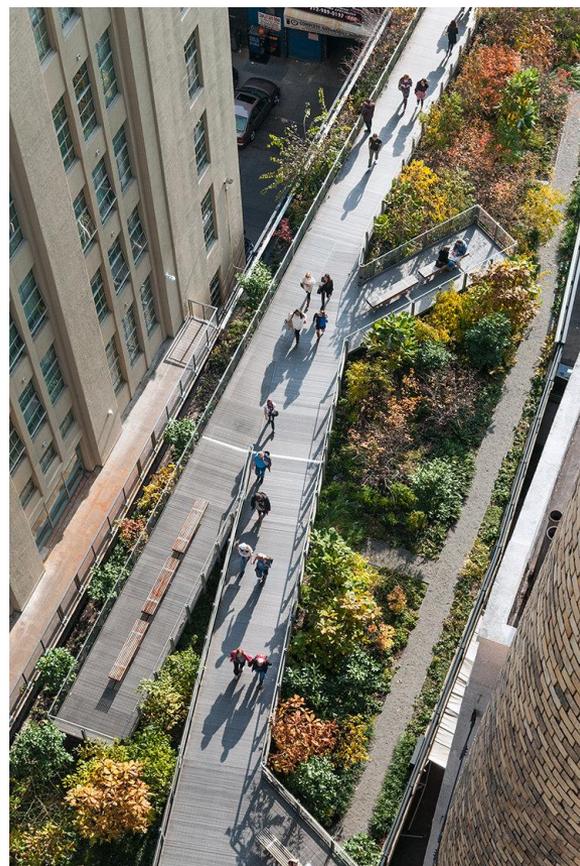
4 A FIELD FROM WHICH MORE INTENSE SPACES AND URBAN ECOLOGIES MAY EMERGE.



간스보트(Gansevoort) 숲

하이라인 공원의 시작점인 간스보트 숲은, 하이라인이 30여년간 방치되어 있던 시절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되살려, 뉴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그 감상적 풍광을 일반인에게 다시 되돌리려는 데에 있었다. 출입구 부분에 강조식재를 하여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펼쳐질 하이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작부에 근접하여 휘트니 미국미술관이 건립되어 하이라인을 내려다보는 조망포인트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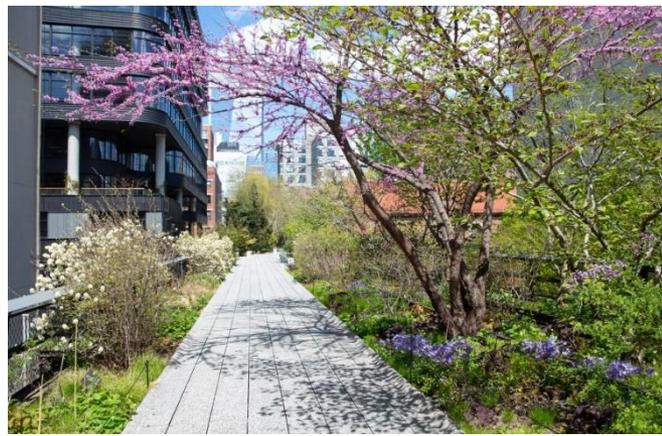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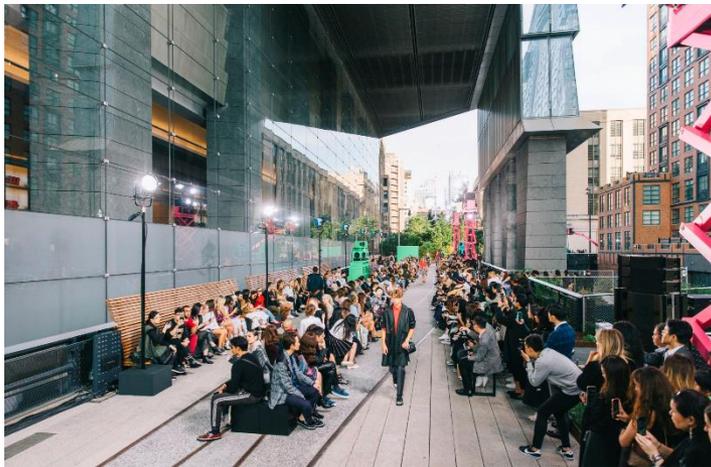
경계를 지우고 도시의 틈에서 자라는 식물들

하이라인의 주요 디자인 컨셉 중 하나는 Agri-tecture, 즉 재배의 건축이다. 식물소재로 대변되는 자연과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인공이 둘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제약 없이, 점진적으로 얽히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한쪽 끝이 좁아지는 플랭크(plank) 형태의 페이빙 소재를 개발하여 두 개의 다른 성질이 서로 녹아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그 사이에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하이라인의 식물디자인에는 네덜란드의 정원디자이너 피에트 우돌프(Piet Oudolf)가 초기부터 결합하였다.







다양한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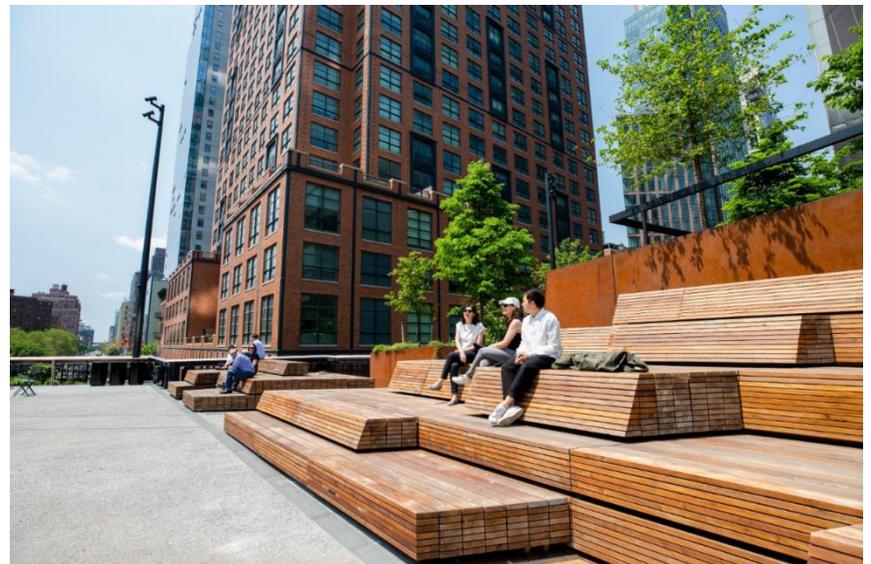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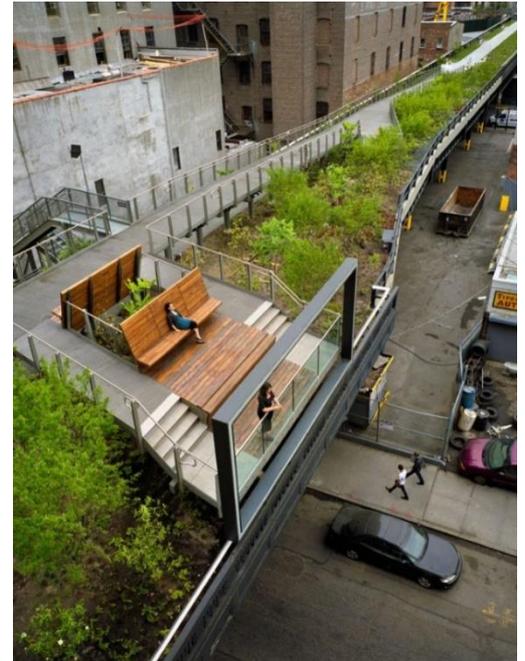
하이라인이 블럭을 빠져나와 10번가로 우회하는 시작점에는 하이라인 구조물을 또다른 방법으로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작은 광장이 설계되었다. 이 부분은 4피트에 이르는 빔의 길이가 7~8피트 가량으로 길어지는 곳이다. 이곳의 빔 일부분이 잘려 나가고, 그 곳에 하이라인 속으로 들어가, 레일과 선로 입면을 창문 삼아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었다. 모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접근 규제(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ccessibility Guideline)와 안전 규제(Life Safety Code)를 적용하여야 하였기에 이곳에는 복잡하게 얽힌 램프와 계단이 설계되었다. 좁은 공간에 BF 디자인을 적용하자면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으나, 오히려 나름의 독특한 미학을 표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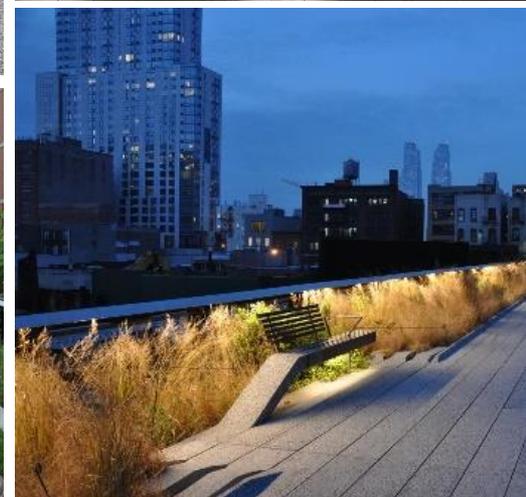


빠른 도시의 흐름 속에서 쉼과 조망의 의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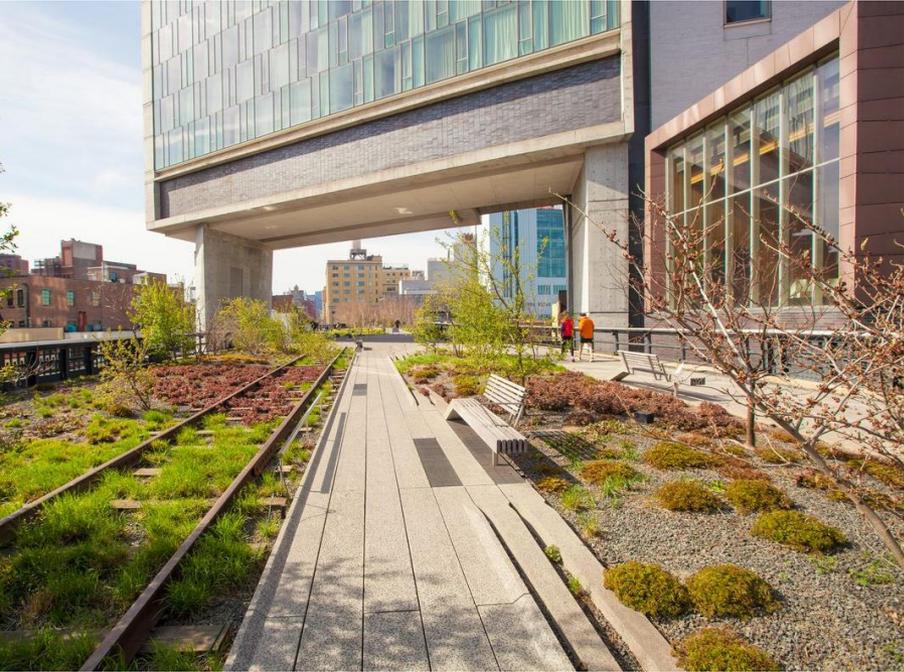
웨스트 14~15번가 사이 구간인 일명 선데크 분수가 있는 공간은 선데크 분수 시설(Sundeck water feature) 공간은 하이라인이 건물 숲을 빠져나와 허드슨 강(Hudson River)을 향해 트여지는 지점으로서(허드슨강변의 14th stree park가 접해있다) 1공구 전 구간에 걸쳐 가장 큰 일조권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시민들이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하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었고, 발밑으로 잔잔한 물결이 일게 하는 분수시설이 가미되어 더욱 다양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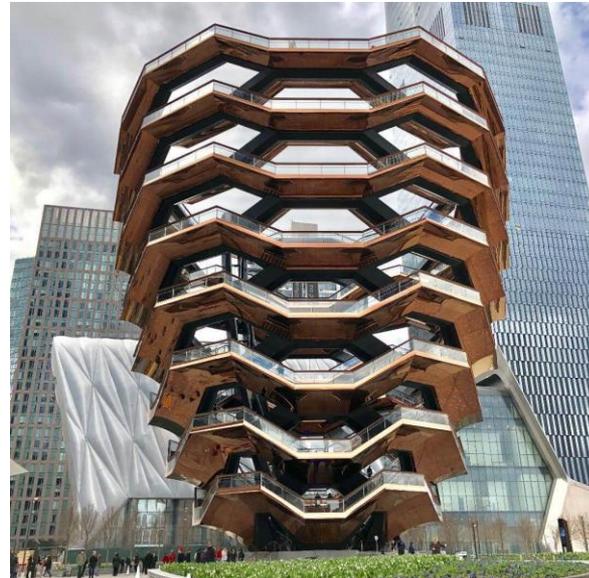


주변 건물과의 관계, 하이라인을 의식한 건축의 변화



10년만에 완성된 하이라인의 마지막구간

The Spur, Simone Leigh의 Brick House(5미터 높이에 스커트와 클레이 집을 형상화한 흑인 여성 토르소)



허드슨야드와 Vessel

과거의 흔적과 구조를 남겨둔 레일야드 구간

일부 구간은 이용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관리 또한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다. 하이라인이 버려져 있을 당시의 폐허, 그리고 야생의 모습을 재현하여 역사의 단편으로 현재와 공존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감상을 도울 수 있는 오버룩(overlook)이 설치되었다.



사회적 자본, 도시기반구조로서의 공원

공원은 문명의 수호신이자, 도시와 삶의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며 받아들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최근에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떠오르는 새로운 관점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제 2의 자연을 구축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며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SOC)과 녹색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FHL에 의한 뉴욕 하이라인 공원의 운영관리

뉴욕시가 맨하튼 서쪽 허드슨 강변 일대를 녹지대 등으로 개발하는 허드슨야드 계획을 추진하면서 첼시지구의 공장건물을 관통하는 하이라인 철도를 철거하려 하자 1999년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하몬드 등은 원주민을 배제한 재개발에 반대해 비영리단체 FHL을 조직하고 구조를 보존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뉴욕시는 레일뱅크라는 연방제도를 활용하여 고가교 하부토지소유자에 대응해 고가교의 통행권을 얻어내었고 고가교 상부는 풍부한 녹지의 공원길로 재생되었다.

산책로의 유지관리는 뉴욕시 공원레크레이션국과 계약된 FHL이 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으로 재생계획의 디자인, 주변 도시계획의 용도변경, 하이라인 소유권의 협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도시와 자연의 새로운 공존기회, 제2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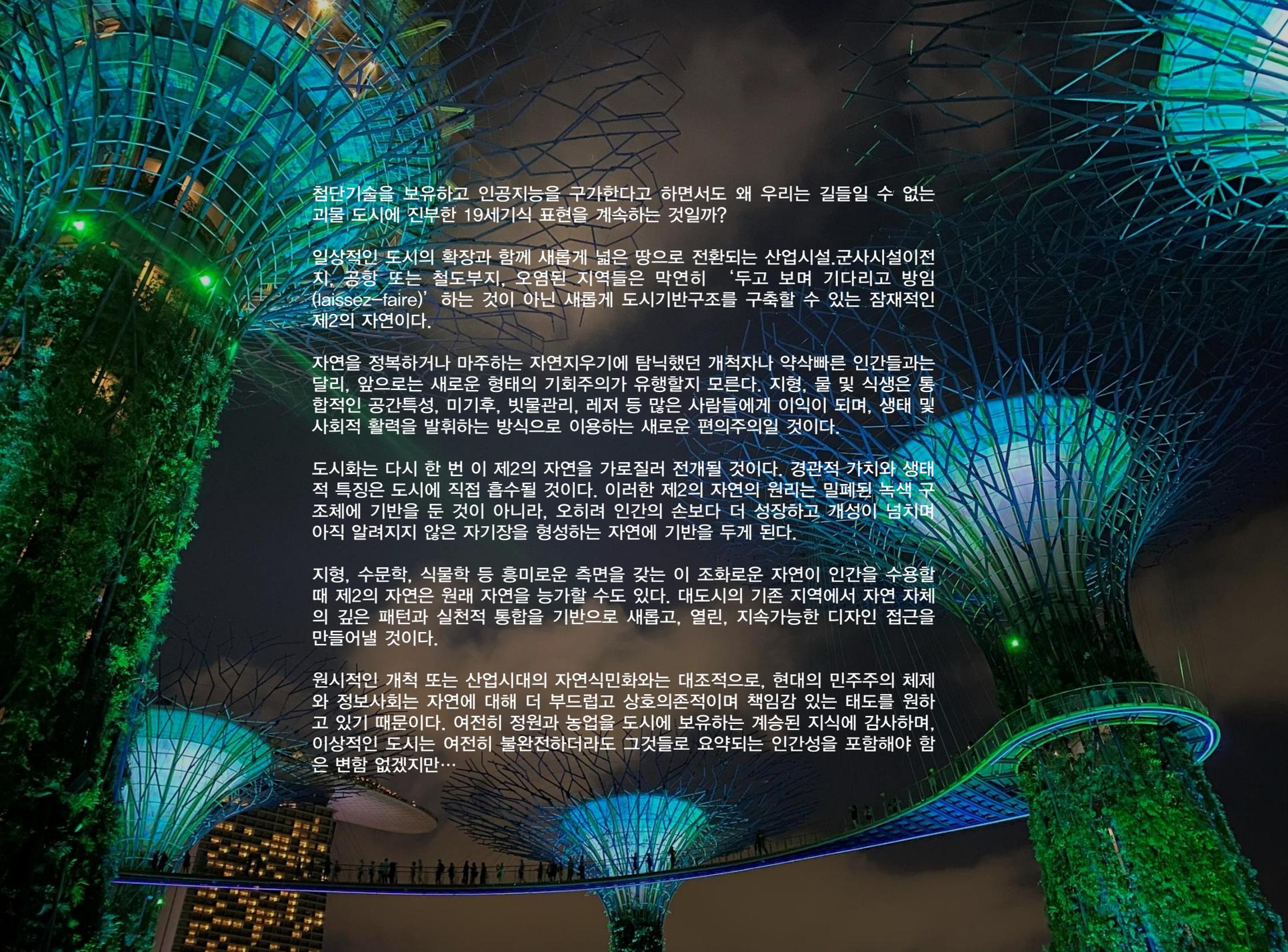
“우리는 곡물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다. 비료를 주고 땅에 물을 준다. 우리는 강둑을 튼튼하게 강화하고 강의 흐름을 곧게 펴거나 물길을 돌리기도 한다. 요컨대, 우리의 손으로 자연 속에서 일종의 제2의 자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키케로_De Natura Deorum*, BC 45년경

* 신들의 자연: 볼테르는 이 책을 고대의 저술 중 최고의 저술이라고 하였으며, 자코보 본파디오는 제2의 자연 개념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적, 신문학적 자연인 정원을 제3의 자연으로 확장하였다.



행위적 제2의 자연(인간에게 개별화되고 학습되며 사회화된 인간의 자연)이 함축하는 의미도 똑같이 중요하다. 구축된 환경을 통해 우리는 행위적 제2의 자연을 보편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의 재활용 행위 또한 제2의 자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없으면 그저 배운 행동은 빠르게 습득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제2의 자연"은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도시성장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도시 속에 생성된 설계된 자연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대의 도시는 광범위하고 매우 복잡한 신진대사를 가진 대규모 조직이다. 기반시설을 빼고 도시를 계획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개선과 변경은 주로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오래된 산업시설 이전지의 재활용은 현재 도시 혁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추세적 현상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인공지능을 구가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길들일 수 없는 괴물 도시에 진부한 19세기식 표현을 계속하는 것일까?

일상적인 도시의 확장과 함께 새롭게 넓은 땅으로 전환되는 산업시설, 군사시설이 전지, 공항 또는 철도부지, 오염된 지역들은 막연히 '두고 보며 기다리고 방임 (laissez-faire)' 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도시기반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제2의 자연이다.

자연을 정복하거나 마주하는 자연지우기에 탐닉했던 개척자나 약삭빠른 인간들과는 달리,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기회주의가 유행할지 모른다. 지형, 물 및 식생은 통합적인 공간특성, 미기후, 빗물관리, 레저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며, 생태 및 사회적 활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편의주의일 것이다.

도시화는 다시 한 번 이 제2의 자연을 가로질러 전개될 것이다. 경관적 가치와 생태적 특징은 도시에 직접 흡수될 것이다. 이러한 제2의 자연의 원리는 밀폐된 녹색 구조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손보다 더 성장하고 개성이 넘치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연에 기반을 두게 된다.

지형, 수문학, 식물학 등 흥미로운 측면을 갖는 이 조화로운 자연이 인간을 수용할 때 제2의 자연은 원래 자연을 능가할 수도 있다. 대도시의 기존 지역에서 자연 자체의 깊은 패턴과 실천적 통합을 기반으로 새롭고, 열린, 지속가능한 디자인 접근을 만들어낼 것이다.

원시적인 개척 또는 산업시대의 자연식민화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사회는 자연에 대해 더 부드럽고 상호의존적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원과 농업을 도시에 보유하는 계승된 지식에 감사하며, 이상적인 도시는 여전히 불완전하더라도 그것들로 요약되는 인간성을 포함해야 함은 변할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설계연구실
Landscape Design Labora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tobcho@jnu.ac.kr

1. 공간, 활동 프로그램을 상상해봅시다

나와 가족이 살고있는 도시공원과 생활권 근린공원(그 공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황도 반영합시다)을 떠올려봅시다.

- (1) 현재의, 혹은 앞으로 공원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상상해보고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 (2)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 공원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글로,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2.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공원의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를 진단해봅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공원의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를 진단해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도시 위기 속에서도 도시공원과 녹지는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공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사회적 약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동네 중심의 생활이 증가하며 대형 공원을 제외한 대다수 소형 공원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공원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원민주주의를 이야기해 봅시다.

- (1) 걸어서 10분 안으로 공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 (2) 다중 관점과 포용적 접근을 통해 공원을 보다 민주주의적 공간으로 개혁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3. 도시의 이전부지는 도시공원이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이전부지의 시 다기능적, 복합적, 생태적 관점으로 부지의 미래를 상상해봅시다.

- (1) 광주공항이 이전한다면 그곳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상상해봅시다.
- (2)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도시의 발전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광주시는 무엇을 하여야 하고 시민들은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